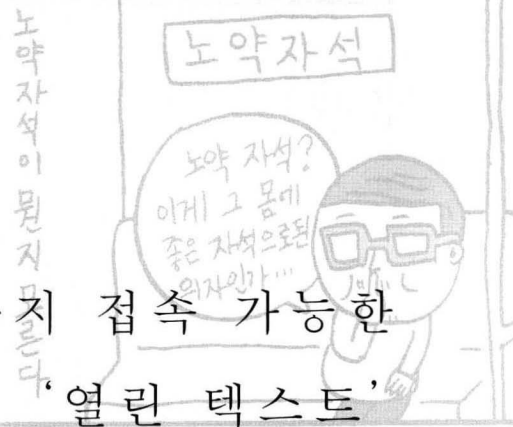




# 노약자석에 앉는 사람



## 텍스트와 언제든 치 접촉 가능한 '열린 텍스트'

만화가 탈주하고 있다! 다단의 프레임을 뛰쳐나온 만화는 유일한 대화양식인 '말풍선' 과도 과감히 결별을 선언했다. 만화는 자신과 어울리는 텍스트를 찾거나 스스로 텍스트를 입히며 오늘 주류 장르 진입을 노리고 있다.

《한국 시사 만화》(한국언론재단, 커뮤니케이션북스)는 박광수의 '광수생각' (1997년 조선일보 연재)을 '에세이만화'라는 새 장르로 공인하고 있다. "컴퓨터그래픽, 신세대 취향의 캐리커처, 탈정치화한 도시민의 일상사, 가벼운 농담에 대한 의미부여, 단순한 선과 색채"를 그것의 특징으로 꼽는 책은 "에세이만화가 새로운 독자군을 생산하며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 평가한다. 《광수생각》(박광수, 소담출판사) 《비빔툰》(홍승우, 한겨레신문사) 등 신문매체로부터 생산된 에세이만화가 '탈주 1세대' 라면, 《파페포포 메모리즈》(심승현, 흥익출판사) 《완두콩》(정헌재, 바다출판사) 등 전자매체로부터 생산된 에세이만화는 '탈주 2세대'로 분류된다.

《지식의 최전선》(김호기 외, 한길사)은 "온라인 디지털 만화는 일정한 제작과정을 거쳐 웹애니메이션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다시 오프라인의 컬러판 형태 만화도서라는 차별적 상품형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며 전자매체와 출판과의 상호협력적 관계를 설명한다. 실제 전자매체의 발달이 종이책을 죽인다는 아우성 가운데서도, 만화는 여보란 듯 전자매체와 종이책의 성공적인 결합을 내보였다.

《파페포포 메모리즈》는 2003년 종합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며 세간의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무명의 작가 심승현이 인터넷카페(cafe.daum.net/papepopo)에 연재한 에세이만화가 유명세를 타며 2002년 10월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파페포포 메모리즈》의 대박 이

후, 출판기획자들은 인터넷을 뒤지며 독립군으로 활동하는 무명의 작가들을 발굴하는 데 주력을 다했다. 《스노우캣 다이어리》(권윤주, 애니북스), 《마린블루스》(정철연, 학산문화사), 《곰씨와 오리군》(핫도그, 해냄), 《양꼬의 그림일기》(양꼬, 새만화책) 등이 《파페포포 메모리즈》의 전례를 따라 출간되며 '에세이만화'의 폭발적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여기에 에세이만화 모두가 만화의 가장 큰 미덕인 유머와 재치를 절제하고, 삶에 대한 진지한 탐구로 독자들에게 감동과 페이스스를 선사한다는 데 있다.

전문필자와 손을 잡고 장르를 중흥무진 넘나드는 작업도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만화가 홍승우와 통역가 김지만이 함께 펴낸 외국어학습서 《비빔툰 일본어》(넥서스), 디자이너이자 만화가 허영희와 성공학강사 앨런코헨이 함께 펴낸 실용서 《몽치의 38가지 행복비결》(샘터) 등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만화가 이우일은 여러 필자와 손을 잡고 역사탐험을 주제로 한 '노빈슨 시리즈' (뜨인돌)를 진행하고 있으며, 동업자 현태준과 함께 여행서 《현태준 이우일의 도쿄 여행기》(시공사)를 내기도 했다.

문화평론가 정여울 씨는 "독자 자신이 여백에 상상력을 개입시켜야 하는 만화는 열린 텍스트"라며 "갇은 텍스트와 또한 접촉할 수 있는 기동성이야말로 만화만이 갖는 장점"이라 말한다. 정씨는 "텍스트보다 경쾌한 리듬, 그림과 대화가 갖는 시너지효과는 거부할 수 없는 만화의 매혹"이라며 '탈주하는 만화'를 적극 지지했다. ■■

박용두 기자

